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5년 10월

선교편지 제 82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 세계 상위 1% 이내에 속한 부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부류에는 저희가 익히 잘 아는 한국 재벌 그룹의 회장들이 포함될 것이고, 또한 세계적인 기업의 CEO, 유명한 가수 또는 연예인들도 속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매우 풍족한 환경에서 일반 서민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제 주위에도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 상위 1% 이내의 부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한 은행에서 최근 발간한 'World Wealth Report (www.worldwealthreport.com)'에 참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상위 1%에 속한 부자'를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약 \$798,000 (약 9억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액수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세계 상위 1% 부자'는 엄청난 부자일 것이라 생각했던 예상과 비교하면 너무 낮은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 경제적으로 극빈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의 평균치가 예상보다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집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일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큰 무리없이 이 부류에 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 약 1,800만명, 중국에 약 157만명, 그리고 한국에도 약 45만명이 이 부류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 재산이 약 \$77,000 (약 9천만원) 정도가 되면 세계 상위 10% 이내의 부자라고 하니, 세계적인 부자들이 그렇게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OXFAM (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이라는 빈민 퇴치 기관의 보고서(www.oxfam.org)에 의하면 이 세계 상위 1%에 속한 부자들이 전 세계의 부의 50% 이상을 누리고 있고, 또한 세계 인구의 50%나 되는 사람들이 단지 1%의 세계의 부를 나누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가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은행 (IBRD)은 최근 '세계 극빈층'의 일일 소득 기준을 \$1.25 (약 1,490원)에서 \$1.90 (약 2,265원)으로 재조정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약 20% 정도의 인구가 극빈층 범주에 속하여 있고,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와 동남 아시아가 가장 많습니다. 즉, 이 지구상에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은 하루에 \$2이 안되는 금액으로 의 식주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듣고 살아 왔지만, 당연하고도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저희들의 삶의 수준은 지구상에 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리어 매우 높음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눅 12:48b)

디고스 예일 교회의 건축을 약 10개월 정도 진행하는 동안, 많은 현지 작업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 평균 15명 정도가 건축에 참여 했었는데, 작업 책임자 외에 숙련자와 비숙련자가 한 팀을 이루어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예를 들어 '철근 용접'에 관한 일은 용접 전문 숙련자와 그 옆에서 용접 일을 도와 주며 배우는 비숙련자가 한 조가 되어서 일을 하는 형태입니다. 수고한 댓가의 '하루 임금'은 현지 시세로 숙련자는 350 페소 (\$7.75), 비숙련자는 200페소 (\$4.50) 정도 입니다. 하지만 교회 건축이기 때문에, 임금이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시세보다는 조금 높게 400페소 (\$8.90) 와 250페소 (\$5.50)를 지급하였습니다. 즉, 일주일 내내 일하고, 숙련자는 주급으로 2,400페소 (약 \$53), 비숙련자는 1,500페소 (약 \$33)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교회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침내 '일자리가 없습니다.'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의 교인 중에도 마침내 한 분이 십일조 헌금을 드리게 시작했습니다. 교회 설립 이후 아직까지 주일 헌금외에 다른 특정 헌금이 없었기 때문에, 십일조 헌금을 드리게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교인이 십일조를 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심하고 최선을 다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주 깨끗한 종이를 헌금 봉투를 만들어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모르겠지만, 헌금 액수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비숙련직'에 속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은 형편이 어



려워서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14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서 다른 두 동생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할 정도로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예배와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교회로 옵니다. 예배 후 친교를 위한 식사 준비는 가장 앞서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소리는 그 가정뿐만 아니라, 디고스 예일 교회에도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 줍니다.

구제미를 가지고 집으로 심방을 갔습니다. 함께 방문한 심방대원들이 한자리에 들어가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누추한 단칸방에 다섯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줌은 방 안의 모든 벽에 빈틈 없이 붙여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형편은 어렵지만 세상의 부로는 측정할 수 없는, 아주 부유한 가정이 이곳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약 2:5)

 교회 건축, 완공, 단기 선교, 학원 사역, 위클리 프 사역등 쉼없이 금년 2015년도를 지나는 가운데 벌써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매년 10월이 시작되면 마치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지나온 시간들을 찬찬히 돌아보게 되고,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8년 10월, 필리핀 민다나오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이후에, 현지 선교 기관과 함께 일 년 단위로 사역을 평가하고, 체류 조건을 갱신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년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선교사의 중기 사역 단위로 구분된 4년마다 또

다른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안식년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이 사역 8년차가 시작되는 시점 이어서, 두번째 4년의 사역을 또 다시 돌아보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 어김없이 미국의 선교 본부로부터 Email을 받았습니다. 안식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영육의 재충전과 재정 후원자를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줄 잘 알지만, 제 답변은 지난 4년전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이곳 선교지에서 매년 안식년과 다른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1907년,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회에서 조선 땅에 파송을 받은 '루비 켄드릭 (Ruby R. Kendrick)' 이라는 24살의 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 정착하여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 8개월만에 병으로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그녀가 순교하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어 보면서, 10월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까닭을 다시 한번 확인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 뜰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옥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 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 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회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눈 앞에 선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 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편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이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 13:31,32)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현지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익핏 고등학교 학원 사역을 위하여
5. 익핏 지역 사역 개척을 위하여
6. 감사절 예배를 위하여
7. 위클리프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하여
8.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9.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 및 학업을 위하여
10.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